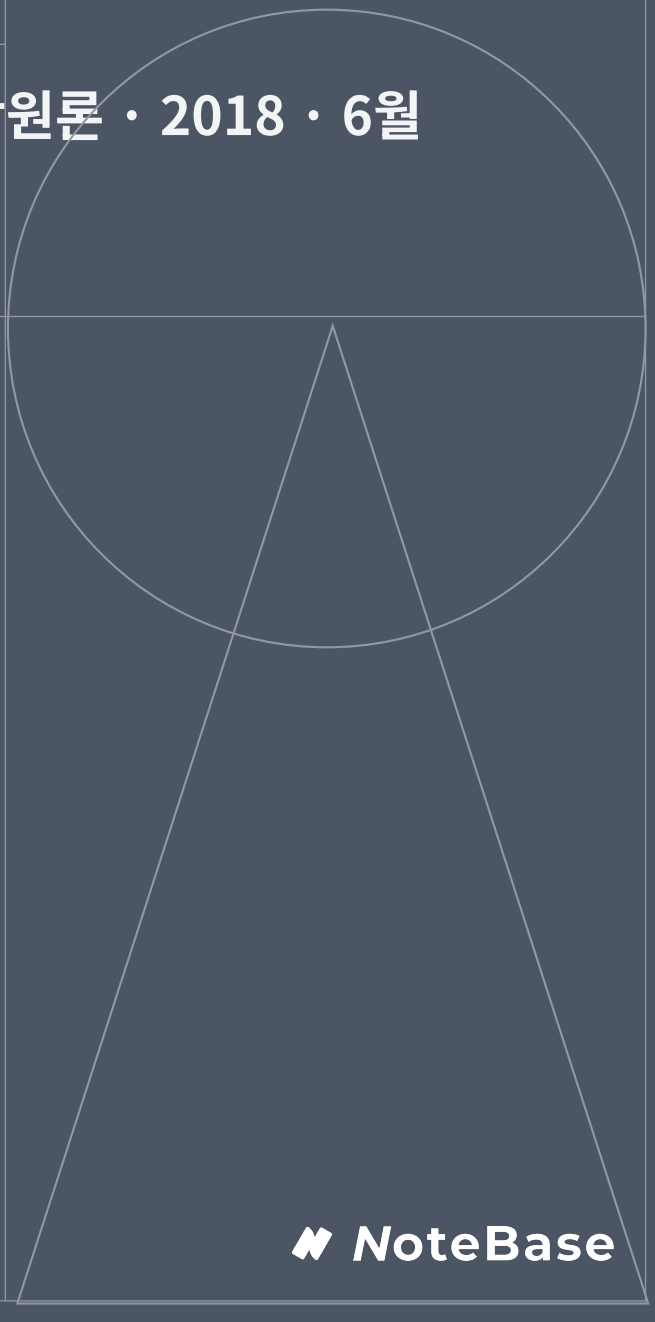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문 1. 정상재(normal goods)의 수요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다.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②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③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작기 때문이다.

④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재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이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는 효과이다.
소득효과는 가격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소비가 변하는 효과이다.
정상재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수요량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상재는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로 수요량이 늘고,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상재는 두 효과의 방향이 같으므로 크기 비교가 핵심 이유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정상재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수요량 증가 방향으로 작용한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열등재에서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일 때 우하향 여부를 설명할 때 쓰는 기준이다. 올바르게는 "정상재는 소득효과 자체가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이어서 크기 비교 없이 우하향한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재가 아니라 열등재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라는 문구로 열등재와 기펜재 판단 기준을 끌어와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정상재는 먼저 두 효과의 방향이 같은지를 보면 되고, ④는 정상재와 열등재의 정의를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 문제는 먼저 대체효과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본다. 정상재이면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상재는 소득 증가 시 소비 증가,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수요 증가 방향이다.

NoteBase

문 2. 어떤 상품의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시장으로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장기균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격은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보다 높다.

② 가격은 평균비용보다는 높지만 한계비용과는 동일하다.

③ 가격은 한계비용보다는 높지만 평균비용과는 동일하다.

④ 가격은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보다 낮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가격, 한계비용, 평균비용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많은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다만 각 기업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고, 따라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은 맞지만,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지 않다.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보다 높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다.

② X
독점적 경쟁은 완전경쟁이 아니므로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지 않다. 우하향 수요곡선 때문에 $P > MC$가 된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과는 동일하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③ O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또한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④ X
장기균형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손실을 보아 퇴출이 계속되므로 균형이 아니다.
또한 독점적 경쟁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아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보다 낮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고 한계비용보다 높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완전경쟁의 장기균형 $P = MC = AC$와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독점적 경쟁도 장기에는 이윤이 0이지만, 상품 차별화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별화된 상품, 많은 기업,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독점적 경쟁을 떠올린다. 그다음 장기균형은 이윤 0이라서 $P = AC$, 상품 차별화가 있으므로 $P > MC$라는 두 줄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 장기균형은 $P = AC$, $P > MC$이다.

NoteBase

문 3. IS-LM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LM곡선은 수평이고 소비함수는 $C = 200 + 0.8Y$이다. 정부지출을 2,000억 원 증가시킬 때, 균형소득의 증가량은? (단, C는 소비, Y는 소득이다.)

① 8,000억 원

② 1조 원

③ 1조 2,000억 원

④ 유동성함정 상태이므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LM곡선이 수평인 유동성함정에서 정부지출승수 $\frac{1}{1-c}$를 이용해 균형소득 증가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소비함수는 $C = 200 + 0.8Y$이다.
구해야 할 값: 정부지출 2,000억 원 증가 시 균형소득 증가분이다.
주의할 조건: LM곡선이 수평이므로 이자율 상승과 구축효과가 없고, 소득증가분은 단순 승수로 계산된다.

사용할 공식

정부지출승수는 $\frac{1}{1-c}$이다.
이 문항에서는 $c = 0.8$이므로 승수는 $\frac{1}{1-0.8} = 5$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LM곡선이 수평이면 재정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 총수요 증가가 그대로 승수과정으로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Delta Y = \frac{1}{1-c} \times \Delta G$
Δ Y = (1)/(1-0.8) × 2,000억 원 = 5 × 2,000억 원 = 1조 원
자율소비 200은 기존 소비 수준을 정하는 항일 뿐 변화분 ΔY 계산에 직접 더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1번: X. 8,000억 원은 계산 결과보다 작다. 틀린 표현은 '8,000억 원'이며, 올바르게는 '1조 원'이다.
2번: O. 승수 5에 정부지출 증가분 2,000억 원을 곱하면 1조 원이므로 맞다.
3번: X. 1조 2,000억 원은 변화분 계산에 자율소비 200을 끼워 넣거나 승수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1조 2,000억 원'이며, 올바르게는 '1조 원'이다.
4번: X. 유동성함정에서는 LM이 수평이어서 재정지출이 이자율을 밀어 올리지 못하므로 소득증가는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구축효과 없이 소득이 증가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동성함정을 통화정책만 무력한 상태로만 기억하고 재정정책 효과까지 없다고 오해하면 4번에 끌린다. 또 소비함수의 200을 변화분 계산에 더하면 3번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LM에서 LM이 수평이면 먼저 이자율 고정과 구축효과 부재를 확인한다. 그다음 한계소비성향으로 승수 $\frac{1}{1-c}$를 구하고 정부지출 변화분에만 곱해 소득증가분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LM 수평 = 유동성함정 = 재정정책 효과 큼, $\Delta Y = \frac{1}{1-c}\Delta G$이다.

문 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가 수입규제를 시행할 경우, 변동환율제에서는 순수출이 ㉠ _____,
고정환율제에서는 순수출이 ㉡ _____.

① ㉠: 증가하고, ㉡: 증가한다
② ㉠: 증가하고, ㉡: 불변이다
③ ㉠: 불변이고, ㉡: 불변이다
④ ㉠: 불변이고, ㉡: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멘델-플레밍 모형에서 수입규제가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시장에서 조정되는 체제이므로 수입규제로 순수출이 늘려는 압력이 생기면 환율 절상이 뒤따라 순수출 증가가 상쇄된다.
고정환율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하는 체제이므로 수입규제로 생긴 순수출 증가 압력이 환율 절상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의 '증가하고'가 틀리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수입규제가 순수출을 직접 늘리려 해도 환율이 절상되어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 상쇄가 일어나므로 순수출은 불변이다.
ㄴ의 '증가한다'는 고정환율제 설명으로는 맞지만, ㄱ이 틀려 조합 전체는 오답이다.

2번 X
ㄱ의 '증가하고'가 틀리다. 변동환율제의 순수출은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다.
ㄴ의 '불변이다'도 틀리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절상 상쇄가 없으므로 순수출이 증가한다.

3번 X
ㄱ의 '불변이고'는 맞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수입규제가 환율 절상으로 상쇄되어 순수출이 변하지 않는다.
ㄴ의 '불변이다'가 틀리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증가한다'이다.

4번 O
ㄱ의 '불변이고'가 맞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수입규제가 환율 절상을 유발해 순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한다.
ㄴ의 '증가한다'도 맞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상쇄 절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순수출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수입규제를 하면 언제나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단순 암기하면 ①로 흐르기 쉽다. 멘델-플레밍 모형에서는 먼저 환율이 움직일 수 있는 체제인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묶어 두는 체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방경제 정책문제는 먼저 환율제도를 본다. 변동환율제이면 환율 조정이 순수출 변화를 상쇄하는지 확인하고, 고정환율제이면 환율이 고정된 대신 어떤 실물변수가 그대로 반영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입규제는 변동환율제에서는 순수출 불변, 고정환율제에서는 순수출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갑(甲)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에 상관없이 매번 일정 금액만큼 주유한다. 갑(甲)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곡선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의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이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단위탄력적, 수요곡선: 직각쌍곡선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 수직선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 단위탄력적, 수요곡선: 수직선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 직각쌍곡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번 지출액이 일정한 경우의 수요가 단위탄력적이며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 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위탄력적 수요는 가격이 변해도 총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요이다. 이 경우 $P \times Q$가 일정하므로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이 된다. 완전비탄력적 수요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수요이므로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갑은 휘발유 가격과 무관하게 매번 같은 금액을 지출하므로 총지출 $P \times Q$가 일정하다. 총지출이 일정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1인 단위탄력적 수요이고, 곡선은 직각쌍곡선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완전비탄력적"이다. 완전비탄력적 수요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고정되는 경우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출액이 고정되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올바르게는 단위탄력적 수요이다. 수직선이라는 곡선 설명은 완전비탄력적 수요에 대응하므로 앞부분이 잘못되었다.
3번: X. 틀린 표현은 "수직선"이다. 단위탄력적 수요라는 판단은 맞지만, 단위탄력적 수요의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직각쌍곡선이다. 올바르게는 단위탄력적, 직각쌍곡선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완전비탄력적"이다. 직각쌍곡선이라는 곡선 설명은 단위탄력적 수요에 해당한다. 완전비탄력적 수요라면 수요량이 고정되어 수직선이 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단위탄력적, 직각쌍곡선이다.

오답 포인트

지출액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완전비탄력적으로 잘못 간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고정되는 것이 수량이 아니라 총지출이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가격이 변해도 총지출이 일정하다고 나오면 먼저 $P \times Q$가 상수인지 확인한다. 총지출이 일정하면 단위탄력적 수요이고,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지출 일정이면 단위탄력, 곡선은 직각쌍곡선이다.

NoteBase

문 6.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곡선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잉여는 _____.

① 감소한다
② 불변이다
③ 증가한다
④ 알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 증가와 공급 불변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효과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핵심 사실 2: 공급곡선은 변하지 않았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수요 증가로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이동 효과와 가격 상승 효과가 함께 작용한다.

핵심 개념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고 동시에 균형가격도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수요 증가가 소비자잉여 면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다.
수요곡선의 상향 이동은 소비자잉여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균형가격 상승은 소비자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순효과는 추가 정보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감소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격 상승만 보면 소비자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수요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면 지불의사도 커지므로 감소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알 수 없다'이다.
② X: '불변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요 증가가 있어도 소비자잉여가 반드시 그대로라고 볼 근거는 없다. 틀린 표현은 '불변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알 수 없다'이다.
③ X: '증가한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수요 증가가 소비자잉여를 늘릴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잉여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생긴다. 틀린 표현은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알 수 없다'이다.
④ O: 알 수 없다가 맞다. 수요 증가와 공급 불변만으로는 소비자잉여의 최종 변화 방향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③을 고르기 쉽고, 가격이 오른다는 점만 보고 ①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소비자잉여가 수요곡선 이동과 가격 상승의 결합 결과라는 점을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나 공급이 이동할 때 소비자잉여는 가격 변화만 보지 않고 지불의사 곡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까지 함께 본다. 한 효과가 잉여를 늘리고 다른 효과가 잉여를 줄이면 방향을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와 공급 불변에서는 소비자잉여의 방향이 불확정일 수 있다.

NoteBase

문 7.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효율시장가설(efficient markets hypothesis)에 따르면 자산가격에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ㄴ. 주가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자산가격 변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을 임의보행(random walk)이라 한다.
ㄷ. 어떤 자산이 큰 손실없이 재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그 자산은 유동적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비유동적이다.
ㄹ.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율시장가설, 임의보행, 유동성, 옵션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시장가설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자산가격에 반영된다는 이론이며, 공개정보가 반영된다는 진술은 준강형 효율시장가설의 핵심이다.
임의보행은 주가처럼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이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유동성은 자산을 큰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다.
ㄷ은 자산을 큰 손실 없이 신속히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유동적이라고 보는 유동성의 정의에 맞는다.
틀린 부분은 정답 조합에서 ㄷ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O
ㄱ은 공개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효율시장가설의 설명으로 타당하다.
ㄴ은 예측 불가능한 자산가격의 시간 경로를 임의보행이라고 보는 설명으로 옳다.
ㄷ은 큰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유동적이라는 뜻이므로 옳다.
따라서 ㄱ, ㄴ, ㄷ을 고른 ②가 맞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풋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고,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④ X
ㄱ, ㄴ,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풋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풋옵션은 매도권이고,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권리 방향을 뒤바꾸는 점이다. 또한 ①처럼 옳은 진술을 일부만 묶어 놓고, ③·④처럼 틀린 ㄹ을 포함해 조합을 흔드는 방식도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형 조합 문제는 먼저 ㄱ~ㄹ 각각의 진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뒤 조합을 맞추면 된다. 옵션 문제가 나오면 콜은 매수권, 풋은 매도권이라는 권리 방향부터 확인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공개정보 반영은 효율시장가설, 예측불가 가격경로는 임의보행, 빠른 현금화는 유동성, 콜은 살 권리이고 풋은 팔 권리이다.

NoteBase

문 8.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직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구직단념자가 되는 경우

② 부모님 농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하던 아들이 회사에 취직한 경우

③ 주당 10시간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④ 전업 주부가 주당 10시간 마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용률의 분자인 취업자에 누가 포함되는지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이동이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고,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구직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구직단념자가 되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뿐 취업자가 되지 않는다. 고용률의 분자인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용률이 높아지는"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할 수 있으나 고용률은 직접 높아지지 않는다.

② X
부모님 농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했다면 이미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취업자에 해당한다. 이후 회사에 취직해도 취업자 1명이 다른 취업 형태로 바뀐 것이므로 취업자 수 자체는 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회사에 취직한 경우"가 곧 고용률 상승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미 취업자로 집계되던 사람이 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③ X
주당 10시간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이미 취업자이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질 변화이지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고용률 상승 요인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자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④ O
전업 주부는 원래 비경제활동인구인데, 주당 10시간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된다.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이고 취업자 수가 1명 증가하므로 고용률이 높아진다.

오답 포인트

실업자에서 구직단념자로 바뀌는 경우를 고용 개선으로 착각하거나,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 변화가 곧 고용률 상승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이면 이미 취업자라는 기준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그 사람이 기존에 취업자로 집계되는지부터 본다. 이미 취업자인 사람이 고용형태만 바뀌면 고용률은 그대로이고,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새로 취업자가 될 때만 고용률이 높아진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은 취업자 수의 문제이다. 유급 1시간 이상, 무급가족 18시간 이상이면 이미 취업자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격상한(price ceiling)은 균형가격보다 ㉠ 하고 가격하한(price floor)은 ㉡ 한다.

① ㉠: 낮아야, ㉡: 낮아야

② ㉠: 높아야, ㉡: 높아야

③ ㉠: 낮아야, ㉡: 높아야

④ ㉠: 높아야, ㉡: 낮아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과 가격하한이 실제로 시장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상한은 정부가 가격의 최고선을 정하는 제도이다. 효력이 있으려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가격하한은 정부가 가격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이다. 효력이 있으려면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때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낮아야'는 맞지만 ㄴ의 '낮아야'가 틀리다. 가격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균형 아래에 있어 시장거래를 제약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이다.
② X: ㄱ의 '높아야'와 ㄴ의 '높아야' 중에서 ㄱ이 틀리다.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균형 위에 있어 시장을 묶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이다.
③ O: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야 각각 최고가격 규제와 최저가격 규제가 실제 거래가격을 제한한다.
④ X: ㄱ의 '높아야'와 ㄴ의 '낮아야'가 모두 틀리다.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구속력이 생기고,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구속력이 생긴다. 올바르게는 '가격상한은 낮아야 하고 가격하한은 높아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상한은 위, 하한은 아래라는 말뜻만 따라가면 균형가격과의 위치를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효력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규제가 균형가격을 실제로 가로막는지로 결정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통제 문제에서는 먼저 자유시장의 균형가격을 기준점으로 둔다. 그다음 가격상한은 그보다 아래에 있어야, 가격하한은 그보다 위에 있어야 시장을 실제로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한은 균형보다 아래, 하한은 균형보다 위에 있어야 구속력이 생긴다.

NoteBase

문 10.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labor)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와 함께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른 외부조건들은 일정하다.)

① 균형노동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임금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② 균형임금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균형노동고용량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③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 모두 반드시 증가한다.

④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의 변화는 모두 불명확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의 한계생산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와 노동시장 참가 증가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함께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는 기업이 노동을 추가로 고용하려는 양으로, 완전경쟁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은 가계가 임금수준에 따라 제공하려는 노동의 양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면 균형고용량은 반드시 늘지만, 균형임금은 어느 쪽 이동 폭이 더 큰지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진보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더 많은 노동자의 참여는 노동공급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우측 이동하면 균형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반면 균형임금은 수요 증가 효과와 공급 증가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변화 방향이 불명확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균형임금은 반드시 상승"이다. 실제로는 노동수요 증가가 임금을 올리지만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균형임금은 상승이 아니라 불명확하다. 균형노동고용량은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 모두 반드시 증가"이다. 실제로는 균형노동고용량만 반드시 증가하고, 임금은 두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며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의 변화는 모두 불명확"이다. 실제로는 임금 변화만 불명확하고, 균형노동고용량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으므로 반드시 증가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임금과 고용량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모두 우측 이동하므로 고용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임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서로 반대 효과를 내므로 불명확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먼저 두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본다. 두 곡선이 모두 우측 이동하면 거래량인 고용량은 증가로 먼저 확정하고, 가격인 임금은 어느 곡선 이동이 더 큰지에 따라 불명확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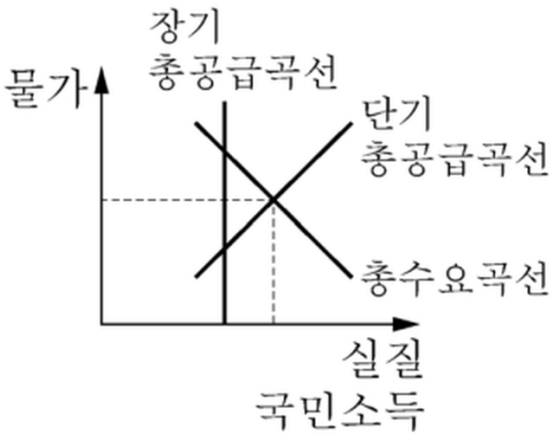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수요 우측 이동 + 공급 우측 이동이면 고용은 증가, 임금은 상대적 이동 폭에 따라 불명확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그래프는 어느 경제의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이다. 이 경제의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이 경제는 현재 장기균형상태에 있다.

② 장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장기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③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며 장기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④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경기침체에 머무르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균형의 산출량이 장기 총공급곡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고, 임금 조정을 통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장기균형으로 복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현재 총수요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의 교점이 장기 총공급곡선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현재 산출량은 완전고용산출량보다 크다. 틀린 표현은 '현재 장기균형상태'이고, 올바르게는 '현재는 장기균형을 벗어난 호황갭 상태'이다.
2번: X. 장기 총공급곡선은 노동, 자본, 기술 같은 실물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이런 단기 조정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장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며'이고, 올바르게는 '임금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장기균형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3번: O. 현재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웃도는 상태이므로 노동시장 압박으로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 상승은 생산비를 올려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경제는 장기 총공급곡선 위의 장기균형으로 복귀한다.
4번: X. 이 경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 잠재산출량을 초과한 과열 상태이다. 틀린 표현은 '경기침체에 머무르게 된다'이고, 올바르게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어도 임금 상승과 단기 총공급의 좌측 이동을 통해 장기균형으로 조정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장기균형 복귀를 묻는 문항에서 장기 총공급곡선이 움직인다고 오해하거나, 현재 교점이 장기 총공급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이 그림은 경기침체갭이 아니라 호황갭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재의 단기균형 교점이 장기 총공급곡선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한다. 교점이 오른쪽이면 호황갭이므로 임금 상승과 생산비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교점이 왼쪽이면 경기침체갭이므로 임금 하락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암기 포인트

교점이 장기 총공급곡선 오른쪽이면 호황갭, 임금상승, 단기 총공급 좌측이동, 장기균형 복귀이다.

NoteBase

문 12. 어떤 독점기업은 1,000개의 재화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이 추가로 더 많은 재화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이때의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은 5만 원보다 작다.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②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③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평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④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왜 가격보다 작아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은 추가로 판 1단위에 붙는 판매가격이다.
한계수입은 판매량을 1단위 늘릴 때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뜻한다.
완전경쟁에서는 개별기업이 가격수용자이므로 추가 판매를 해도 가격이 그대로여서 한계수입과 가격이 같다.
독점에서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내려야 하고, 그 인하된 가격이 기존 판매분에도 적용되어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진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한계비용 증가는 생산비 측면의 변화일 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지는 이유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독점기업이 추가 판매를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진다.

② O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재화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새로 판 1단위의 수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000개에도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되므로 한계수입은 5만 원보다 작아진다.

③ X
평균비용 증가는 비용구조의 문제이고 한계수입과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여 판매량을 늘릴 때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이다.

④ X
한계비용 감소 역시 생산비 변화일 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지는 직접 원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추가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내려야 해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진다.

오답 포인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함께 배우다 보니 ①이나 ④처럼 비용변화를 이유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독점에서 $MR < P$가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에서 판매량 증가가 나오면 먼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지를 본다. 추가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내려야 하면 그 가격인하가 기존 판매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은 $MR = P$, 독점은 가격인하 때문에 $MR < P$이다.

NoteBase

문 13.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② 부의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③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인플레이션율 1%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GDP의 %포인트 감소분으로 표시되는 희생비율이 높아진다.

④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의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도 급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요인과 기울기가 희생비율 및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공급충격을 반영한 단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상충관계이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나 부의 공급충격은 곡선을 위로 이동시킨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GDP 감소분의 크기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이 급할수록 같은 물가하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출 감소는 더 작다.
단기 총공급곡선은 산출 변화에 대한 물가의 반응 정도를 보여 주며, 단기 필립스곡선이 급할수록 함께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같은 실업률에서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② O
부의 공급충격은 생산비를 높여 물가는 오르고 산출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로 이동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희생비율이 높아진다"이다.
올바르게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필요한 GDP 감소분이 작아져 희생비율은 낮아진다.

④ O
단기 필립스곡선이 급하다는 것은 산출 변화에 비해 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같은 내용이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말로 대응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울기가 급하면 조정이 더 어렵다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희생비율도 커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희생비율은 같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출 감소의 크기이므로, 곡선이 급할수록 필요한 산출 감소는 오히려 작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문제는 먼저 이동 요인인지 기울기 효과인지를 구분한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부의 공급충격은 곡선을 위로 이동시키고, 기울기 문제는 같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필요한 실업 또는 산출 손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인플레 상승·부의 공급충격은 SRPC 위로, SRPC가 급할수록 희생비율은 낮고 SRAS는 가파르다.

NoteBase

문 14. 중앙은행이 국공채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이 통화량, 국공채 가격 및 국공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화량 증가, 국공채 가격 상승, 국공채 수익률 상승

② 통화량 증가, 국공채 가격 상승, 국공채 수익률 하락

③ 통화량 증가, 국공채 가격 하락, 국공채 수익률 상승

④ 통화량 감소, 국공채 가격 상승, 국공채 수익률 상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이 통화량, 채권가격,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 매입: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키워드는 통화량 증가, 채권수요 증가이다.
국공채 가격과 수익률: 채권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하락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므로 통화량은 증가하고, 국공채 수요가 늘어 가격은 상승한다.
틀린 부분은 '국공채 수익률 상승'이다.
실제로는 국공채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한다.

② O
통화량 증가, 국공채 가격 상승, 국공채 수익률 하락의 조합이 공개시장 매입의 전형적 효과이다.
중앙은행의 매입이 채권수요를 늘려 가격을 올리고, 가격 상승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③ X
틀린 부분은 '국공채 가격 하락'과 '국공채 수익률 상승'이다.
실제로는 공개시장 매입으로 국공채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격은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한다.
통화량 증가만 맞고 채권시장 효과는 반대로 적었다.

④ X
틀린 부분은 '통화량 감소'와 '국공채 수익률 상승'이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통화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채권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률은 하락한다.
국공채 가격 상승만 맞고 나머지 방향이 틀렸다.

오답 포인트

채권가격과 수익률의 역관계를 놓치면 ①처럼 가격 상승과 수익률 상승을 함께 고르기 쉽다. 또 공개시장 매입을 긴축정책으로 혼동하면 ④처럼 통화량 감소를 붙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지 파는지부터 본다. 사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다음 채권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이므로 수익률은 하락한다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개시장 매입은 돈 공급 증가, 채권가격 상승, 채권수익률 하락이다.

NoteBase

문 15. 어떤 독점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두 시장에서 판매한다.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A시장에서 1,500원으로 책정한다면 B시장에서 책정해야 하는 가격은? (단, A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B시장에서는 2이다.)

① 1,000원

② 1,500원

③ 2,000원

④ 2,500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3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에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같아지도록 가격을 정하는 원리를 이용해 B시장의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시장의 가격은 1,500원, A시장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3, B시장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2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가 되도록 할 때 B시장의 가격이다.
주의할 조건: 가격차별 독점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같아야 하며,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사용할 공식

각 시장의 한계수입은 $MR = P\left(1 - \frac{1}{|\varepsilon|}\right)$이다.
가격차별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_A = MR_B = MC$이므로 두 시장의 한계수입을 같게 놓는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탄력성을 가진 두 시장에 판매한다고 했으므로 3급 가격차별의 최적 가격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A시장의 한계수입을 구하면 $MR_A = 1500\left(1 - \frac{1}{3}\right) = 1500 \times \frac{2}{3} = 1000$이다.
2. 이윤극대화에서는 $MR_B = 1000$이어야 한다.
3. B시장에서는 $MR_B = P_B\left(1 - \frac{1}{2}\right) = P_B \times \frac{1}{2}$이므로 $P_B \times \frac{1}{2} = 1000$이다.
4. 따라서 $P_B = 2000$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1,000원은 B시장의 최적 가격이 아니라 두 시장에서 같아져야 하는 공통 한계수입 값이다. 올바르게는 B시장 가격이 2,000원이다.
2번 X: 1,500원은 A시장 가격일 뿐이며, 탄력성이 다른 B시장 가격까지 같게 정하는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B시장의 탄력성이 더 낮으므로 B시장 가격은 A시장보다 높은 2,000원이다.
3번 O: $MR_A = 1000$, $MR_B = P_B \times \frac{1}{2}$이므로 $P_B = 2000$이 된다. 탄력성이 더 낮은 B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가격차별 원리와도 일치한다.
4번 X: 2,500원이라면 $MR_B = 2500 \times \frac{1}{2} = 1250$가 되어 A시장의 한계수입 1,000원과 같아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B시장 가격이 2,000원이어야 이윤극대화 조건이 충족된다.

오답 포인트

A시장에서 계산된 1,000원을 그대로 B시장의 가격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 1,000원은 가격이 아니라 한계수입이며, 탄력성이 낮은 시장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을 놓치면 1번이나 2번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차별 독점 문제는 먼저 탄력성이 주어진 시장의 한계수입을 구하고, 그 값을 다른 시장의 한계수입 식에 대입해 가격을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탄력성이 더 낮은 시장의 가격이 더 높게 나왔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3급 가격차별 독점은 $MR_A = MR_B$, 그리고 탄력성이 낮은 시장일수록 가격이 더 높다.

NoteBase

문 16. 한 기업의 사적 생산비용 $TC = 0.5Q^2 + 10Q$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공해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비경제를 비용으로 추산하면 추가로 $20Q$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Q = 30 - 0.5P$일 때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의 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① 7

② 10

③ 17

④ 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비용을 더해 한계사회비용을 만든 뒤, 이를 수요의 한계편익과 일치시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사적 총비용은 $TC = 0.5Q^2 + 10Q$, 외부비용은 $20Q$, 수요식은 $Q = 30 - 0.5P$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 관점에서의 최적 생산량 Q이다.
주의할 조건: 사회적 최적은 사적 한계비용이 아니라 한계사회비용과 한계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사적 한계비용은 $MPC = \frac{dTC}{dQ} = Q + 10$이다.
외부비용이 $20Q$이므로 한계외부비용은 $MEC = 20$이고, 한계사회비용은 $MSC = MPC + MEC = Q + 30$이다.
수요식 $Q = 30 - 0.5P$를 역수요식으로 바꾸면 $P = 60 - 2Q$이므로 한계편익은 $MB = 60 - 2Q$이다.
사회적 최적은 $MB = MSC$에서 결정된다.

계산 과정

1. 사적 총비용을 미분하면 $MPC = Q + 10$이다.
2. 한계외부비용 20을 더하면 $MSC = Q + 30$이다.
3. 수요식을 역수요식으로 바꾸면 $P = 60 - 2Q$이므로 $MB = 60 - 2Q$이다.
4. 사회적 최적 조건 $MB = MSC$를 적용하면 $60 - 2Q = Q + 30$이다.
5. 정리하면 $30 = 3Q$이므로 $Q = 1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Q=7$이면 $MB=60-2\times7=46$, $MSC=7+30=37$이다. 아직 $MB>MSC$이므로 생산을 더 늘리는 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틀린 표현은 최적생산량을 7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MB=MSC$가 되는 10이 최적이다.

② O: $MSC=Q+30$, $MB=60-2Q$를 놓고 $60-2Q=Q+30$을 풀면 $Q=10$이다. 외부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생산량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 X: $Q=17$이면 $MB=60-34=26$, $MSC=17+30=47$이다. $MSC>MB$이므로 사회적으로 과다생산 상태이다. 틀린 표현은 최적생산량을 17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0까지 줄여야 한다.

④ X: $Q=20$이면 $MB=20$, $MSC=50$이다. 외부비용까지 반영하면 과다생산이 더 심해진다. 틀린 표현은 최적생산량을 20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0이 사회적 최적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사적 비용만 보고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다. 외부비용을 무시하면 $60-2Q=Q+10$에서 $Q=\frac{50}{3}\approx16.7$이 나와 ③에 끌리기 쉽다. 사회적 최적은 총외부비용 $20Q$ 자체가 아니라 그 미분값인 한계외부비용 20을 사적 한계비용에 더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불경제가 있는 생산문제는 먼저 총비용을 미분해 MPC를 구하고, 외부비용을 미분해 MEC를 구한 뒤 $MSC=MPC+MEC$를 만든다. 그 다음 수요를 역수요식으로 바꾸어 MB와 MSC를 같게 두면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바로 나온다.

암기 포인트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은 $MB=MSC=MPC+MEC$에서 결정되고, 생산량은 사적 최적보다 작아진다.

NoteBase

문 17. 한 나라의 쌀 시장에서 국내 생산자의 공급곡선은 $P = 2Q$, 국내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P = 12 - Q$ 이며, 국제시장의 쌀 공급곡선은 $P = 4$이다. 만약 이 나라 정부가 수입 쌀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부의 관세수입 규모는? (단, 이 나라는 소규모 경제이며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① 2

② 3

③ 6

④ 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가관세가 부과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가격, 수입량, 단위당 관세액을 구한 뒤 관세수입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내 공급곡선은 $P = 2Q$이다.
국내 수요곡선은 $P = 12 - Q$이다.
국제가격은 4이다.
수입쌀에 5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구해야 할 값:
정부의 관세수입 규모이다.

주의할 조건:
소규모 경제이므로 관세를 부과해도 국제가격 4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50% 관세는 국제가격 4의 50%이므로 단위당 관세액은 2이다.

사용할 공식

관세수입 = 단위당 관세액 × 관세 후 수입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관세수입은 수입 1단위마다 걷는 관세액에 실제 수입된 물량을 곱해 계산한다. 이 문제는 종가관세율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관세 후 국내가격과 그에 따른 수입량을 다시 구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국제가격이 4이고 관세율이 50%이므로 관세 후 국내가격은 $4 \times 1.5 = 6$이다.
2. 국내공급은 $6 = 2Q$이므로 $Q_s = 3$이다.
3. 국내수요는 $6 = 12 - Q$이므로 $Q_d = 6$이다.
4. 관세 후 수입량은 $Q_d - Q_s = 6 - 3 = 3$이다.
5. 단위당 관세액은 $0.5 \times 4 = 2$이므로 관세수입은 $2 \times 3 = 6$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2는 관세수입이 아니라 단위당 관세액이다. 올바르게는 관세수입은 단위당 관세액 2에 관세 후 수입량 3을 곱한 6이다.

② X
3은 관세 후 수입량이다. 올바르게는 관세수입은 수입량 3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단위당 관세액 2를 곱한 6이다.

③ O
관세 후 국내가격은 6이고, 이때 국내수요량은 6, 국내공급량은 3이므로 수입량은 3이다. 단위당 관세액 2를 곱하면 관세수입은 6이 된다.

④ X
8은 자유무역일 때 가격 4에서의 국내수요량이다. 올바르게는 관세수입은 수요량 8이 아니라 관세 후 수입량 3에 단위당 관세액 2를 곱한 6이다.

오답 포인트

50% 관세를 보고 단위당 관세액 2를 바로 답으로 고르거나, 관세 후 수입량 3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기 쉽다. 또한 자유무역 가격 4에서 구한 수요량 8을 관세수입과 혼동하면 ④에 걸린다. 관세수입은 단위당 관세액과 관세 후 수입량을 모두 구한 뒤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 문제는 국제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국내가격을 먼저 구하고, 그 가격에서 국내수요량과 국내공급량을 다시 계산한 뒤, 수입량에 단위당 관세액을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종가관세 수입은 '국제가격 × 관세율'로 단위당 관세액을 구한 뒤, '관세 후 수입량'을 곱해 계산한다.

NoteBase

문 18.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는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②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③ 일시적 소득세 감면이 지속적인 감면보다 소비지출 증대 효과가 작다.

④ 불황기의 평균소비성향은 호황기에 비해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에서 소비가 현재의 일시적 소득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경기순환적 움직임을 묻는다.

핵심 정리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은 소비가 일시소득보다 항상소득에 비례한다고 본다.
항상소득은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 소득이고, 일시소득은 일시적 경기변동이나 우연한 소득증감이다.
따라서 일시소득 증감은 소비보다 저축의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는 단순히 현재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흐름을 반영한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는 맞다.

② O
항상소득이론의 핵심은 소비평활화이다. 소비자는 일시적 소득충격이 있어도 소비를 급격히 바꾸기보다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③ O
일시적 소득세 감면은 일시소득 증가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저축으로 흡수되기 쉽다. 반면 지속적인 감면은 항상소득 증가로 인식되므로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크다.

④ X
틀린 표현은 '불황기의 평균소비성향은 호황기에 비해 감소한다'이다. 항상소득이론에서는 불황기에는 현재소득이 항상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지므로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불황기의 평균소비성향은 호황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항상소득이론에서는 소비가 안정적이므로 불황기에 소득이 더 많이 줄면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프리드먼 문제가 나오면 먼저 소비가 항상소득 기준인지 일시소득 기준인지부터 본다. 일시적 소득변화는 소비보다 저축을 더 크게 움직이고, 불황처럼 현재소득이 항상소득 아래로 내려가면 평균소비성향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프리드먼은 항상소득으로 소비를 설명하고, 일시소득은 저축이 흡수하며, 불황기 평균소비성향은 높아질 수 있다.

NoteBase

문 19.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이 <보기>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일인당 자본량은? (단, 기술진보는 없다.)

<보기>
• 생산함수 : $y = 2k^{1/2}$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 감가상각률 5%, 인구증가율 5%, 저축률 20%

① 2
② 4
③ 8
④ 1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솔로우 성장모형의 정상상태 조건 $sf(k) = (n + \delta)k$를 이용해 일인당 자본량 k^*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함수는 $y = 2k^{1/2}$, 저축률은 $s = 0.2$, 감가상각률은 $\delta = 0.05$, 인구증가율은 $n = 0.05$이다.
구해야 할 값: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량 k^*이다.
주의할 조건: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정상상태 조건은 $sf(k) = (n + \delta)k$이다.

사용할 공식

$sf(k) = (n + \delta)k$
이 문제에서는 $f(k) = 2k^{1/2}$이므로 저축투자는 $0.2 \times 2k^{1/2} = 0.4k^{1/2}$이고, 자본유지에 필요한 투자는 $(0.05 + 0.05)k = 0.1k$가 된다. 두 값이 같아지는 k가 양의 정상상태 자본량이다.

계산 과정

1. 정상상태 조건에 대입하면 $0.4k^{1/2} = 0.1k$이다.
2. 양변을 0.1로 나누면 $4k^{1/2} = k$이다.
3. $x = k^{1/2}$로 두면 $x^2 = 4x$이므로 해는 $x = 0$ 또는 $x = 4$이다. 보기에서 묻는 값은 양의 내부 정상상태이므로 $x = 4$를 택한다.
4. 따라서 $k = 4^2 = 16$이므로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량은 16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k = 2$를 대입하면 저축투자는 $0.4\sqrt{2}$이고 자본유지투자는 0.2이어서 같지 않다. 정상상태 자본량이 2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른 값은 16이다.
② X: 4는 k가 아니라 중간단계의 $\sqrt{k}$ 값이다. $4k^{1/2} = k$에서 $\sqrt{k} = 4$까지 구한 뒤 한 번 더 제곱해야 하므로, 정상상태 자본량이 4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른 값은 16이다.
③ X: $k = 8$을 대입하면 저축투자는 $0.4\sqrt{8}$이고 자본유지투자는 0.8이어서 같지 않다. 정상상태 자본량이 8이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른 값은 16이다.
④ O: $k = 16$을 대입하면 저축투자는 $0.4\sqrt{16} = 1.6$이고 자본유지투자도 $0.1 \times 16 = 1.6$이므로 정상상태 조건을 만족한다.

오답 포인트

정상상태 조건을 세운 뒤 $\sqrt{k}$를 구하고도 그것을 바로 k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②는 그 함정을 노린 선지이고, $n + \delta$를 먼저 더하지 않으면 계산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계산문제는 먼저 $sf(k)$와 $(n + \delta)k$를 각각 만든 다음, 둘을 같게 놓고 마지막에 구한 값이 k인지 $\sqrt{k}$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정상상태는 $sf(k) = (n + \delta)k$이고, $\sqrt{k}$가 나오면 마지막 제곱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한다.

NoteBase

문 20.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지출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면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저축하여 미래에 납부할 조세의 증가를 대비한다는 이론이다.

②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에 직면하기 때문에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현실 설명력이 매우 큰 이론으로 평가된다.

③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아무런 경기팽창 효과를 내지 못한다.

④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이 조세든 국채든 상관없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핵심 내용과 그 정리를 약화시키는 현실적 한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규모가 같다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민간이 느끼는 총부담의 현재가치는 같아서 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경제주체가 미래 조세부담을 예상하고, 감세분을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제약이 작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정부지출이 그대로인데 현재 조세를 줄이면 그만큼 미래 조세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합리적 경제주체는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 미래 세금 증가에 대비한다고 본다.
2번 X: 틀린 부분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현실 설명력이 매우 큰 이론"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유동성제약이 크면 가계가 세금감면분을 당장 소비할 수 있어 국채와 조세가 대등하지 않게 되므로, 리카도 대등정리의 현실 설명력은 약해진다.
3번 O: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적자재정에 따른 감세는 현재 소비를 늘리지 못하므로 단기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뿐 아니라 현재 시점의 총수요 효과도 상쇄된다는 점을 말한 선지이다.
4번 O: 정부지출이 주어졌을 때 재원조달을 조세로 하든 국채로 하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는 것이 바로 리카도 대등정리의 요지이다. 핵심은 정부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조세 시점의 변경만으로는 민간의 순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동성제약, 근시안적 소비, 차입제약 같은 현실적 마찰은 리카도 대등정리를 지지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깨뜨리는 요소이다. 2번은 이 약화 요인을 거꾸로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감세분을 미래세금으로 인식해 저축한다", "조세와 국채의 재원조달 효과가 같다"라고 말하면 리카도 대등정리의 정방향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유동성제약이나 비합리성을 들어 이 이론의 현실성이 높아진다고 말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 대등정리 = 지금 감세해도 미래 증세를 예상해 저축한다. 유동성제약이 크면 대등성은 약해진다.

NoteBase